경제혁신 3개년 계획 경제의 틀을 바꾸면 미래가 달라집니다.
경제혁신
산업통상자원부 MINISTRY OF TRADE, INDUSTRY & ENERGY
보 도 자 료
희망의 새시대
http://www.motie.go.kr
2015년 4월 3일(금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문의 : 산업통상자원부 기술규제정책과 김남정 과장(043-870-5520), 임미희 연구사(5528)

기업이 당면한 무역기술장벽(TBT) 해소에 산업부가 앞장

- 중국, 중동, 중남미 등 신흥국 중심의 10개국과 21건의 TBT 논의 -

□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**2015년 제1차 세계무역기구 무역기술장벽(이하 WTO TBT) 위원회(3.17~19, 스위스 제네바)**에 참석*하여 우리 기업들이 수출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술규정, 표준 및 인증 관련 현안 21건에 대해 논의하고, 우리 기업에 그 결과를 전파**했다.

* 우리측 대표단: 주제네바 대표부 공사참사관(수석대표) 외 산업부, 국표원, 식약처 등 6명

** 일부(칠레, 노르웨이 등) 국가는 우리측 요청에 대한 협의결과를 최근(3.28일) 회신해왔으며, 이를 우리 기업에 전파하고 추가 대응방향 협의(3.31일)

► **WTO TBT 위원회 정례회의**: 160개 WTO(World Trade Organization, 세계무역기구) 회원국이 연 3회(3, 6, 11월) 회의개최
► 무역기술장벽(**TBT**: Technical Barriers to Trade): 차별적인 기술규정·표준·인증 등이 국가간 무역에 불필요한 장애요인으로 작용하는 것

<우리 기업의 무역기술장벽(TBT) 현안(10개국 21건)>

▲중국(화장품 상표부착(라벨링) 등 3건), ▲인도(타이어 인증 등 2건), ▲사우디(타이어 효율 등 2건), ▲에콰도르(전지 안전성 등 3건), ▲남아공(가전제품 에너지 효율 1건), ▲칠레(TV 에너지 효율 등 2건), ▲베트남(화장품·의약품 1건), ▲러시아(전자제품 유해물질 등 2건), ▲미국(타이어 식별번호 등 4건), ▲노르웨이(유해 화학물질 제한 1건)

○ 특히, 이번 회의에서는 최근 기술규제 통보가 급증*하고 있는 **중국, 인도, 중동, 중남미 등 신흥국들과** 이에 대응하기 위한 **다른 회원국간의 팽팽한 신경전**이 눈길을 모았다.

* '14년 개도국의 신규 TBT 통보 수(2014 WTO 연차보고서): 1,223건(80%)

□ 이번 회의에서 우리 측이 문제 제기한 주요 기술규정, 표준 및 인증 관련 현안을 살펴보면,

○ 먼저, 화장품상표(라벨)를 스티커 형태로 제품 겉표면에 부착하는 **'상표 덧붙이기(오버 라벨링)'**은 전세계적으로 통용되는 방식이지만 **중국만이 이를 금지**하고 있어 우리측은 미국, 캐나다, 유럽연합(이하 EU), 일본과 함께 규제 개선을 촉구하였고, **중국 측은 해당규제를 재검토**하기로 했다.

○ 또한, 인도의 경우 우리 기업이 **인도에 타이어를 수출**할 때 외국기업에만 **은행보증**을 요구하고 타이어 **인증마크(ISI) 수수료** 산정 근거를 공개하지 않는 문제점이 있어 우리 측은 EU, 일본과 대응했으며, 인도측이 이를 검토해보겠다고 하였다.

* (인도의 타이어 인증 규제) TBT 협정 제2.1조(내국민대우원칙) 및 제10.3조(투명성) 위반

○ 텔레비전(이하 TV) 소비전력 기준 충족 및 해당 라벨 부착을 의무화하는 규제에 대해 **칠레측**과 논의한 결과, **한국의 시험성적서(KOLAS)도 허용**하고 **라벨 규제는 차후 시행키로 합의가 도출되어**, 칠레 TV시장*의 60%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우리 기업들이 중남미 시장을 확대해 나가는 데 이바지 할 것으로 판단된다.

* '14년 칠레 TV 시장규모: 6,650억원, 우리기업 수출액: 4,330억 원(멕시코 생산량 포함)

□ 한편, 최근 들어 규제 신설이나 개정 사실을 WTO 회원국에 **사전 통보하지 않고 시행하는(미통보) 국가***가 늘고 있는 가운데,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도 전개하였다.

* 우리나라가 발굴한 타국의 미통보 규제(국표원 통계): 25개국 138건('14년～'15.2월)

○ **노르웨이**의 경우, 유해 화학물질 사용 제한*과 관련하여 사전통보 및 유예기간 없이 지난 2월부터 시행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이로 인한 우리 기업들의 애로가 접수됨에 따라, 노르웨이측에 공식 이의제기 서신 발송 및 양자협의 등을 통해 추가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.

* 공산품내 브롬계 난연제 2종 물질(decaBDE, HBCDD) 사용금지, 부품별 함유량 기준(포장재도 포함), EU는 '15.821일 시행예정이나 노르웨이는 '15.2.12일 공표 즉시 시행

○ **사우디**와 관련하여, 우리 기업이 에어컨 에너지 효율 구(舊)라벨 부착* 으로 인해 세관 통관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, 우리 측의 적극적인 의견 개진과 사우디 대표단의 협조로 **통관 문제를 해결**할 수 있었다.

* 사우디 정부가 해당규제 개정 사실을 통보하지 않아 우리 기업의 사전 대응 불가

□ 이번 회의는 회의참석 준비 단계부터 **TBT 연합체(이하 컨소시엄) 구성·운영을 통해 기업의 애로를 발굴하고 민관이 공동의 대응** 노력을 기울여 우리 기업의 무역기술장벽을 해소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.

* **TBT 컨소시엄**: 1) 전기·전자, 2) 기계·금속, 3) 화학·생활 분야 18개 협단체로 구성, TBT 통보문 조사 및 분석, 관련업계에 정보제공 및 의견수렴 등의 활동 추진

○ 국가기술표준원은 앞으로도 **TBT 위원회**를 국가간 무역장벽 해소를 위한 **외교적 협상의 장(場)**으로 적극 활용할 예정이며, 나아가 시급히 해결해야할 사안에 대해서는 **해당국 방문협의도 병행***할 계획이다.

*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(KOTRA) 현지상무관을 통한 해당국의 신규 기술규제 발굴 및 우리정부의 현지 방문을 통한 적극적 대응 추진

○ 특히, 중소 수출기업들도 해외 TBT 정보를 손쉽게 습득하고 적극적인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**맞춤형 온라인 TBT 정보 제공**과 함께 **중소기업 대상 TBT 교육**을 확대할 방침이다.

* 해외 TBT 정보는 TBT 포털사이트(www.knowtbt.kr)에서 얻을 수 있으며, **'TBT 통보문 자동경보시스템'**을 신청하면 실시간 규제 정보를 이메일로 수신 가능

○ 차기회의는 6월 중순에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다.

[붙임] 우리 기업의 무역기술장벽 현안(21건)

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기술규제정책과 김준호 연구관(☎ 043-870-5524) 또는 임미희 연구사(☎ 043-870-5528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[붙임] 우리 기업의 무역기술장벽 현안

* 10개국에 21건: 합의도출 7건, 추가대응 14건

국가	TBT 규제명	비고
중국	• 화장품 라벨링 규제 • 의료기기 감독관리 조례 • 리튬이온 전지 안전 규제	추가대응 추가대응 추가대응
인도	• 2차 전지 안전 규제 • 타이어 인증 규제	합의도출(현황파악) 추가대응
사우디	• 타이어 성능 효율 규제 • 가전제품 냉매 규제	합의도출(현황파악) 추가대응
에콰도르	• 축전지(2차전지) 안전 규제 • 1차 전지 안전 규제 • 스피커 성능 시험 및 라벨링 규제	합의도출(현황파악) 합의도출(현황파악) 합의도출(현황파악)
남아공	• 가전제품 에너지 효율 라벨링 규제	추가대응
칠레	• TV 에너지 효율 규제 • LED 조명기구 규제	합의도출 추가대응
베트남	• 화장품 및 의약품 규제	합의도출(현황파악)
러시아	• 전기전자제품 유해물질 규제 • 가전제품 에너지 효율 규제	추가대응 추가대응
미국	• 타이어 식별번호 규제 • LED 램프 규제 • 화장품 자외선 차단효과 성분 규제 • 화장품 색소 규제	추가대응 추가대응 추가대응 추가대응
노르웨이	• 제품내 유해 화학물질 사용 규제	추가대응